

창업보육센터, 성공을 꿈꾸는 자의 선택



창업보육센터장 정회훈

(사)벤처기업협회 부설
서울벤처인큐베이터

지난 12월말, 벤처협회와 부설 창업보육센터인 서울벤처인큐베이터는 테헤란밸리를 떠나 구로디지털단지로 이전했다. 이곳으로 이사오기까지 벤처협회는 참으로 긴 시간 선택의 갈등 속에 있었다. 사회적 역할과 수익적 판단 사이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지만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가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과감히 구로디지털단지로 입성하게 된 것이다.

1천5백여 평의 넓은 창업보육센터에서 매일 만나는 입주 기업들의 활기찬 움직임 속에서 우리의 투자가 진정 값진 것이었음을 확인한다. 그들의 진심 어린 노력과 하루하루 겪어내는 성장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앞으로 맞이할 성공의 결실을 한층 더 강하게 확신하는 것이다.

단 5%만이 성공한다는 벤처창업, 벤처버블 이후 장기 침체상황에 처한 국내 벤처산업의 현실 속에서 더욱 위축된 창업 분위기 때문에 이전처럼 도전적인 창업자를 찾기 쉽지 않다. 세계 최초의 기술이라는 표현이 적지 않게 등장했던 사업계획서도 이제 보기 쉽지 않을 뿐더러 안정된 자리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벤처라는 도전에 응해 오는 인재도 드문 상황이다. 다소 순진하다 싶은 정도로 자신의 사업에 자긍심을 가졌던 창업가들을 만나기도 어렵다. 한마디로 **창업은 더 이상 성공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지 않게 된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실패에 대한 이른 추측으로 어느 누구도 선뜻 창업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요즘의 대한민국 벤처 창업의 현주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창업의 열정을 키워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창업보육센터이다. 다소 부족한 자원과 아직 채워지지 않은 역량이지만 누구보다 강한 성공에 대한 믿음과 열정으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시설과 경영지원서비스를 공유하는 것만이 아니다. 창업의 과정을 거쳐 성공이라는 미래의 꿈을 함께 나누고 키울 수 있는 뜨거운 '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창업보육센터이다.** 밤이 깊어가는 창업보육센터의 불 꺼진 복도, 그 복도를 밝게 비추는 입주업체 사무실의 불빛들을 보면서 정보화 사회 다음이 꿈의 사회라고 예견한 미래학자 롤프안센의 드림소사이어터가 바로 지금 여기에 실현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 성공을 꿈꾼다면, 그리고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창업보육센터는 당신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창업의 열정을 키워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창업보육센터
이다.